

장진기 / 김은경 선교사 캄보디아 선교소식

P.O.Box 0332, Kampong Cham,
Cambodia

Tel: 855-97-807-1720(장진기) / 855-89-859-230(김은경)
E-mail: changjinkee@gmail.com / keksk21@gmail.com

2015년 4월 30일
15번째 선교편지



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리며, 섬기시는 가정과 사역 위에 주님의 은혜가 편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부족한 가정을 항상 기억해 주시며, 기도해 주심에 다시금 깊이 감사 드립니다.

지민이는 지난 2월 13일 퇴원하였습니다. 다만 주치의 소견으로 다음 수술 전까지는 외부활동을 금하고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는 문제로 김은경 선교사(아내)는 계속해서 국내에 머무를 것 같습니다.

다음 수술 전까지 안정을 취하며, 기타 질병으로 인한 2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부탁 드리며, 그간의 소식을 간략히 전합니다.

교회사역

가족 결혼식 참석차 임시귀국길에 올랐던 2주간, 15명 내외의 인원이 드렸던 예배가 30명이 넘는 배가의 기쁨을 누렸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당시의 감동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언젠가부터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란 생각이 마음 속 확고한 믿음이었던 "선교는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생각을 밀어낼 때 즈음, 교회로 보여주신 이 일을 계기로 더욱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지인 전도사(까끄다)도 사역의 기쁨을 맛보는 기회가 된 것 같아 감사합니다.

지금의 이들이 잠깐의 즐거움으로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이들을 지속적으로 양육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붙들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이들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부탁 드립니다.

4월의 첫 주,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교회의 분주함은 여느 교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저 평범한교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부활절 달걀을 나누는 과정에서 달걀을 나누는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닌 삶은 달걀을 먹을 수 있어 행복한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더욱 감당해야 할 사역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선교의 사역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부탁 드립니다.

KL협회 - 현지학교 지원사업

1년 반 넘게 물품후원을 위해 수고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달여간 컨테이너 보관소에 묶여있는 물품을 찾기 위해 수고해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현지의 사정을 모르고 무턱대고 시작한 이 일을 위해 지인 분의 도움을 받아 정부관계자를 통한 새로운 루트로 후원물품을 찾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접대비비용에 이따금 이것이 올바른 방법인가 하는 의문으로 심적인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물품을 회수하지 않고 방치하게 될 경우, 받게 되는 현지법의 문제가 있어 반드시 찾아야만 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한터라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그리고 배운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받은 물품은 단순히 저희만의 사역이 아닌 모든 분들의 사역을 돕는 차원에서 받은 물품을 함께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현재는 물품을 나누는 중에 있으며, 어느 정도 분류가 되면 도움을 주신 선교사님의 사역지와 함께 물품을 나누기로 되어 있는 선교사님 가정에게 전달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누는 과정에서 상호간 서운함이란 단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함께 기쁨으로 나누길 바랄 뿐입니다.



가정의 소식

지민이는 현재 2주에 한번 통원하여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심장내과 검진을 받고 있으며, 굳은 무릎은 돌 전까지 유아마사지를 해주며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돌 이후로도 계속 굳은 상태가 유지되면 수술을 통한 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검사에서 이상소견을 접하게 되어 5월 12일 입원하여 CT촬영 및 기타 검사를 통해 지민이의 현 상태를 재검사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검사결과에 따라 재수술도 예상하고 있는 터라 동역자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 1. 교회사역:** 예배 후 2부 모임에 대하여 까끄다 전도사와 협의한 결과, 현지 아이들의 교육 수준의 문제를 우선으로 하여 크메르어 공부를 우선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추후 진행과정에 따라 반을 분류하여 재편성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또한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는 것 같아 걱정인 까끄다 전도사의 사역에 조금이라도 나누어 함께할 수 있는 사역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함께하는 기쁨을 통해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줄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2. 지역전도와 장학사역:** 그리스도 안에서 품은 가정과 학생의 마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소원하며,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잡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 3. 언어의 진보:** 듣는 귀와 말하는 입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 그 안에 함축된 현지인들의 표현과 문화를 받아드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가정교사를 쉽게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줄 현지인 가정교사를 구할 수 있도록 기도부탁 드립니다.
- 4. 가정을 위해:** 지민이의 회복과 다음 수술 전까지 특이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부탁 드립니다.
현재 산소포화도 수치가 낮아 이를 걱정하고 있으며 칼륨수치가 높아 신장에도 무리가 간다고 합니다. 5월 12일 입원하여 재검사를 할 때에 큰 이상이 없도록 기도부탁 드립니다.
지아, 지훈이의 국내 생활이 이후 선교지 삶에 좋은 추억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기간이 자녀의 마음속에 상처가 될까 늘 염려하는데,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품에 안아 주셔서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부탁 드립니다.